

KLPGA 시즌 최종전 ADT캡스 챔피언십

내일부터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서... 72명 정예선수 전원 치열한 진검승부

쉽 없이 달려온 2016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종착지만을 남겨뒀다. 올 시즌 남은 대회는 단 하나. '대세' 박성현(23·넵스)이 미국 진출로 불참하지만 타이틀 경쟁은 여전한 치열하다.

KLPGA 투어 2016 시즌 최종전인 'ADT캡스 챔피언십 2016(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이 11일부터 3일간 경기 이천에 위치한 사우스스프링스(파72·6505야드)에서 열린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DT캡스 챔피언십은 72명의 정예선수 전원이 삼일 동안 치열한 진검승부를 펼친다.

7승과 함께 상금왕을 확정하는 등 KLPGA 투어를 휩쓴 박성현이 내년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면서 이집게 최종전에는 나서지 않는다.

박성현이 한 동안 국내 무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차기 '대세' 자리를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스타게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현을 제치고 대상포인트 1위를 확정 한 고진영(21·넵스)은 컨디션 난조로 지난주 대회에서 기권했지만 이번 최종전에서 시즌 4승과 대상을 자축하겠다는 각오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왕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막판까지 뜨겁다.

NH투자증권 신인상포인트 부문에서 이정은(20·토니모리)이 1997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위 이소영(19·롯데)이 1963점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신인상 포인트는 '톱10'에 들면 최소 70 점을 받고, 30위를 기록해도 40점을 획득

과시했다.

박성현이 워낙 돋보이는 기록을 남겨 빛이 바랬지만 3승과 함께 시즌 누적 상금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대상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는 성적을 거뒀다.

지난 시즌 이 대회에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맛 본 오지현(20·KB금융그룹)은 타이틀 방어와 함께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작년 이 대회 우승 후 이번 시즌 상반기에 상승세를 이어가며 6월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우승으로 통산 2승째를 달성했다.

하반기 주춤했지만 지난주 '팬텀 클래식'에서 공동 4위에 오르는 등 경기력이 회복세에 있다.

오지현이 우승할 경우 이번 시즌 KLPGA 투어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유일한 선수가 된다.

이밖에 시즌 2승을 기록 중인 김혜림(27·롯데), 조정민(22·문영그룹), 이승현(25·NH투자증권), 배선우(22·삼천리) 등도 차기 '대세'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왕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막판까지 뜨겁다.

NH투자증권 신인상포인트 부문에서 이정은(20·토니모리)이 1997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위 이소영(19·롯데)이 1963점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신인상 포인트는 '톱10'에 들면 최소 70 점을 받고, 30위를 기록해도 40점을 획득



박성현을 제치고 대상포인트 1위를 확정 한 고진영(21·넵스)은 컨디션 난조로 지난주 대회에서 기권했지만 이번 최종전에서 시즌 4승과 대상을 자축하겠다는 각오다.

할 수 있다.

불의 차이가 34점에 불과해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내년 시즌 투어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싸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회가 끝나고 상금순위 60위까지 다음연도 시드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상금순위 65위 박보미(24·PNS), 70위 김현

수(24·롯데) 등이 막판 시드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

이들은 상금순위 60위 이내에 들지 못했다. 전년도 상금순위 30위 이내 기록, '전년도 드림투어 상금순위 6위 이내 기록', '역대 우승 선수' 등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김민근기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선수단 해단식

역대 최고성적을 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해단식이 열렸다.

이날 해단식에는 장애인 체육회장인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회의장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전주이룸다문화센터 웨딩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해단식에는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메달 획득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배구협회에게 입상 포상금이 전달됐다.

송하진 지사는 치사에서 "우리 선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간 흘린 땀의 결과가 좋은 열매로 맺어짐에 대하여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여건 개선, 전문지도자 배치, 훈련장비·용품 지원, 신인선수 발굴·육성, 우수선수관리 등에 더욱 집중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 체육발전과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장수초등학교 정구팀, 창단식 갖고 본격 활동 시작

장수초등학교 정구팀이 9일 장수초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단식에는 대한정구협회 이계왕 회장과 전북체육회 최형원 스포츠진흥처장, 전북정구협회 조정규 명예회장, 신동식 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선수단은 서문달현, 서문달인, 박해성, 서준성, 이우솔, 김강현, 김재현, 김철아, 김민, 이지수, 백지원, 이수아 선수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전북체육회 정구팀 선수로 활동하였으며 강원도 횡성중학교 정구팀 코치로 근무하면서 금메달 획득을 지도했던 임근영 코치로부터 지도받게 된다.

임근영 지도자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2년 내에 소년체전 출전을 목표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기자

프로야구 SK, 외국인 투수 메릴 켈리 재계약

SK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외국인 투수 메릴 켈리(28)와 재계약했다.

SK는 9일 켈리와 연봉 85만 달러(약 9억6200만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켈리는 지난 시즌 31경기에 출전해 9승8패 평균자책점 3.68을 기록했다. 탈삼진 152개(리그 2위)와 KBO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200%이닝을 소화했다.

특히 켈리타스타트(QS) 20회는 물론 켈리타스타트 플러스(QS+)는 리그 최다인 14회를 기록했다.

켈리는 계약을 마친 후 "나를 믿어준 SK와 함께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근기자

박정우 감독, "꼭 다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획·제작 4년...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

"꼭 다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판도라'의 배우 스테프·투자사 등 모든 관계자들은 이 영화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 외에도 작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진지하고 진부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영화 '판도라'(12월 개봉 예정) 연출을 맡은 박정우 감독은 "연가시" 촬영 중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재난 사고가 벌어졌다"며 "그런 사고가 터지면 우리나라도 점점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원전을 더 많이 짓고 수출하고 정책 산업으로 키워나가려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다"며 이번 작품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 감독은 "외압으로 인해 개봉 시기를 못 잡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며 "후반 작업이 오래 걸렸다. 아직도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4년이 걸렸다"고 했다. '판도라'는 투자 철회

와 개봉 지연 소동으로 인해 외압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박 감독은 또 "현 시국이 이 영화에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나라냐며 욕도 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끊은 곳을 도려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망이지만 희망의 시간이라고 생각 한다.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다. 관객이 원자력발전소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봐준다면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도라'는 원전 재난 영화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한반도를 뒤 흔들고,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영화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판도라'는 기획과 제작에 4년이 걸린 대작이다.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



12월 개봉 예정인 영화 '판도라'의 한장면

큼 자료 조사에 공을 들였고, 시나리오 초고를 쓰는 데만 1년이 걸렸다. 촬영 장소를 지원받을 수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전 시설 세트를 만들고, 많은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번 작품에는 주연을 맡은 김남길과 함께 문정희·정진영·강신일·김대명·유승목·김주현 등이 힘을 보탤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